

합격기

[2011년 행시 재경직 합격]

“자신만의 스타일 찾기”



박 보 란

- 1988년 생
- 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2011년(제55회) 행시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1년 행정고시 재경직렬에 합격한 박보란입니다. 고시생이던 시절에는 합격해서 수기를 남기는 게 모습을 상상하곤 했는데, 막상 합격한 후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수기를 써 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고 계시길 바랍니다.

고시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부 초반에는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고시 공부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다른 길과 새로운 진로들이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그리고 합격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깨달으면서 불안함이 더해져서 마음가짐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도 될까,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흔들림의 시간이 고시를 하는 동안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는데, 이런 불안감으로 공부의 리듬을 놓치거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만큼 합격의 순간이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자기 확신은, 공무원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흔들림이 없으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공부하기 수월한 시험이 행정고시입니다. 행정고시에 이제 입문하거나, 고시 공부 중에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왜 공무원을 하고 싶은지, 자신만의 이유를 찾

고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으시길 바랍니다.

II. 시기별 공부 방법

1. 2009년 1월~6월

고시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3학년 때였지만, ‘공무원은 비전이 없고 안정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에 저 또한 막연한 반감을 가졌고, 선뜻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직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직업이 나와 잘 맞을지에 대해서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도 찾아보고, 스스로의 생각 정리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서, 2009년 1차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공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기에 할 수 있는 조언이 많지 않습니다. 3순환을 따라가긴 했지만 답안지를 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스터디로 답안을 작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에 답안 연습은 2차 시험 직전 혼자서 몇 번 해보았고, 2차 시험장에서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황설수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기에는 합격할 자신이 없었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공부에 더 소홀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 뒤인 2011년, 마지막 시험을 치면서 생각한 것이지만, 합격하지 못함을 알고 있더라도 그 시기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고시공부 초반에 기본을 탄탄히 하지 못한 것이 그 이후의 공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2. 2009년 9월~2009년 12월

여름 동안 신나게 놀고 복학을 하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인터넷 강의로 황종휴, 행정법은 정선균을 들었습니다. 행정학은 제가 어려워하고 걱정하던 과목이어서 나름 차별화를 두고자 비주류 강사님 2순환을 들었습니다만, 그 강사분이 저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행정학은 여전히 어렵고 재미없고 힘든 과목으로 남았습니다. 재정학과 국제경제학 모두 황종휴를 실강 또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3순환을 따라가던 때보다는 쫓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 과목들은 교과서를 여러 번 읽었으며, 행정법은 행정법 엑기스를 진도에 맞춰 암기하였습니다. 문제 풀이의 필요성을 느껴 답안 작성 스테디를 하기도 했는데, 제 답안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스테디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꾸만 스스로를 자극해야 발전하는 법인데, 그런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을 혼자서도 연습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혼자서는 답안 작성을 안 하게 되는 분들은 힘들고 부끄럽더라도 꼭 스테디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2010년 1월~6월

1월이 되면서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 올인하다는 2차 감각을 모두 잃을 것 같아서 1월에는 하루의 1/3을 1차에, 2/3을 2차에 투자하였습니다.

다. 2월부터는 2차 공부는 그만두고, 실제 시험처럼 psat 모강을 푸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시의 경험을 통해 시험 전날 하루 한 과목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단권화 자료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3순환을 김진옥 수업을 따라갔기에 김진옥 zip으로, 행정법은 새로 나온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행정학은 박경효 선생님의 자료를 보았으며, 재정학과 국제경제학은 황종휴의 다이제스트에 단권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단권화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내용을 습득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과목들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중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용을 응용하고 암기하기보다는 책에 정리를 하는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3순환에 답안을 냈으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2차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4. 2010년 9월~12월

2차 시험이 끝나고 재정학 중 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가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하였고, 학원을 다니는 대신 각 강사들의 기존 모의고사 문제들을 구해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에는 익숙

해진 상태였으므로 교과서를 읽는 속도가 빨라져서, 내용을 재검토하면서도 문제 풀이가 병행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주요 판례의 핵심 문구들을 작은 노트에 직접 써보면서 외우려고 했고, 재정학은 실증분석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단권화를 통한 암기로는 실제 문제 응용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서 경제학 과목들은 교과서를 중심의 공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5. 2011년 1월~6월

1차 공부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1월 동안은 하루의 1/3을 psat문제풀이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김진옥 500제를 푸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500제에 풀이가 없는 것이 답답해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각종 교과서 해답지를 구해서 500제에 있는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2월에는 2차 공부는 줄이고 psat을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했는데, 1차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계속 2차 공부를 병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가 끝나고 이번에는 3순환 학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사들의 수업은 이미 고시공부 기간 동안 들어보아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 보다 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과목의 순서도 학원과 다르게, 제가 편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행정법을, 그리고 경제학 3과목을, 마지막에 행정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행정학이 불안해서 경제학 3과목을 학원의 평소 진도보다 빨리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매일 지난해 3순환의 문제들을 풀었는데, 처음에는 답안을 돌려보는 스터디를 하다가 나중에는 답안 작성만 하는 자율스터디를 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집중한 것은 혼자만의 공부시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이나 스터디에 시간을 쓰기 보다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했던 행정학의 경우에만 인터넷 강의로 3순환을 단기간에 돌려보았습니다.

2차 공부 도중에 입법고시 1차에 합격한 것을 알았고, 행정고시 2차보다 한 달 앞섰던 입법고시 2차 기간에 맞추어 스스로의 3순환 진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입법고시 보기 5일 전부터는 하루에 한 과목을 돌려보아야 했기에, 계획이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한 일정 속에서 공부하느라 오히려 행정고시 2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입법고시 이후 한달 간 회독수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던 고마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III. 과목별 공부 방법

1. 1차 시험

1차 시험은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이 답이 근거했는지를 찾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각 선지 하나하나가 본문의 어떤 내용에서 도출되었는지 파악하여 적어두고, 시험 직전에는 그렇게 정리해둔 기출문제집만 보았습니다. 모강은 시간 맞춰 풀어보는 용도 이상으로는 별로 의미

를 두지 않았습니다. 모강 점수에 신경을 쓰면 그날의 공부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채점을 하지 않거나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2. 2차 시험

(1) 경제학

경제학의 경우 교과서를 여러 번 정독하였는데, 미시경제학의 경우 이준구 저와 이영환 저를, 거시경제학의 경우 정운찬 저와 맨큐 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학은 두 교과서에서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미시와 거시 모두 김진욱 자료로 공부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이론을 잡는 데에는 교과서가 가장 좋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과서의 연습문제는 물론이고, 강사들의 2순환, 3순환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취약한 부분의 문제를 일부러 많이 풀면서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풀이가 정형화된 문제(독과점 모형이나 성장론 모형)는 곧바로 수식과 풀이 과정이 답안에 현출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시사성이 있거나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은 ‘내가 아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서 답을 생각해 보되,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소위 ‘썰을 푸는’ 문제는 하나의 내용을 깊이 있게 쓰기 보다는, ‘썰을 날

린다'는 표현처럼 여러 개의 내용을 적절히 쓰는 것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의 시작과 끝이 판례입니다. 저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선균 강사를 따라갔기에 박균성 저와 행정법 엑기스로만 공부했습니다. 사실 박균성 저는 공부 초반에만 보고, 행정법 엑기스가 저의 주 교재였습니다. 너무 많은 학설과 이론을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법조문을 하나라도 더 쓰고, 법조문의 내용이 지금 설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며, 관련된 판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적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학설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그냥 긍정설 부정설이 있다는 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대신 판례의 핵심 구절은 외우도록 노력했습니다. 구절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사건이 핵심이 된 사안에서 판례가 각각/인용/각하를 했는지 적었습니다. 공부가 어느정도 되면 항상 '나오게 되는' 판례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적격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판례는 매 답안을 연습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쓰는 습관을 들여서,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된 문제의 실제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판례와 반대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했고, 후에 판례를 알게 되어 매우 불안해했는데, 자신이 도출한 답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판례 판단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상관없

는 것 같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저에게 정말 많은 고민을 준 과목입니다. 2009년, 거의 백지 상태로 본 시험 점수와 2010년, 나름 공부를 했다고 본 시험의 점수가 거의 비슷해서 그야말로 불합격의 원인이 될 것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2011년 시험에서는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전의 시험과 비교해보자면 비교적 '편안하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있는지를 보이려고 애를 썼다면, 2011년에는 마치 학교 레포트를 쓰는 기분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이론적으로 풍부하지 못하여 내용 몇 개가 빠졌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답안이 서론과 결론까지 상당히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읽는 사람에게 쉽게 읽히고, 답안을 쓰는 수험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답안이 행정학의 좋은 답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박경효 행정학 자료를 공부했고, 그 자료에 있는 논문들을 요약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고시 초반에 산 액션 행정학으로 마지막 공부를 하였습니다. 물론 액션행정학이 2009년인가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2011년의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부족한 부분을 따로 정리하여 끼워 넣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은 2차 시험 직후에도 자잘한 실수가 생각나서 걱정했던 과목인데,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준구 저만을 읽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합격하는 해에는 임봉옥 저의 공공경제학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두번째 시험까지는 단권화를 강사 자료로 했는데, 재정학이아말로 이론적인 깊이가 중요한 것 같아서 교과서로 돌아가기로 하고, 임봉옥 저에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김진옥 자료를 끼워넣고, 로젠의 재정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복사하고, 이준구 신판이 나오면서 개정된 부분을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재정학은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도 했지만, 여러 교과서에 있는 실증분석을 모아서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학자 이름과 실증분석 내용을 외우기가 꽤 어려웠고, 이걸 과연 답안에 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전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상당히 많이 적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실증분석이 가점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3과목이 모두 마찬가지로이지만, 재정학 또한 정형화된 모형은 고민 없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오염배출권 같은 문제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알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면 실전에서 생각이 안 나가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2차 시험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에, 2011년에는 풀이 방법이 정해진 문제는 거의 암기하

시피 했습니다.

(5)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제가 경제학 3과목 중 항상 점수가 낮고, 어려워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2011년에는 통계학으로 바꿀까도 잠깐 고민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교과서 하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형이 교과서마다 다른 비중으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크루그만 모형은 김인준 저에는 크게 다루지지 않았으나 시험에는 2년 연속 출제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재정학과 마찬가지로, 2010년 시험까지는 강사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하던 저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인준 저를 중심으로 크루그만의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고, 무역론의 경우 김신행 저가 이해가 쉽게 되어 있기에 김신행 저를 정독했습니다. 답안을 연습할 때 국제경제학은 항상 다각도의 시각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사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으므로 국제 경제 관련 기사도 가끔 읽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엄밀한 계산 과정을 보여야 하는 문제에서 계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합의만을 썼는데, 사실 그 합의에 대해 확신은 없었고 '문제의 의도는 이랬을 것이다'라는 저의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합의가 문제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덕분에 큰 감점 없이 무난한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3. 3차 면접

3차 면접은 여러분이 2차에 합격하면 더 많은 생생한 조연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면접은 집단토론과 개별면접으로 구성되는데, 토론면접은 스터디를 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적인 이슈를 정리해서 이에 실천처럼 토론하는데, 논리성뿐만 아니라 억양, 속도 등을 서로 피드백 하면서 1~2주 후에는 스터디원 전부가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면접 또한 주어진 시간 안에 프레젠테이션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스터디원들 앞에서 발표하며, 모의 질문을 받아서 실전에 대비하였습니다. 인성면접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기반해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나 사건을 기억해두고 어떤 질문에도 그러한 이벤트를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벤트

라는 것은 꼭 '특별한 일'일 필요는 없고, 소소한 일상이더라도 자신이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IV. 나가며

장황한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많이 잊어버려서, 기억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에는 正道가 없으므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부딪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3순환을 듣는다고 3순환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스터디가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의 수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꼭 합격하셔서 어디선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